

## “24일부터 총장 없지만, 제도는 있어야”

〈차기 총장 선출제〉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오는 23일로 예정된 조인원 총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기 총장을 선출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지 못했다. 차기 총장 선출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총장 선출 역시 늦춰지고 있다. 법인 단독 선임 구조를 탈피한 타 대학에서 총장 선출 과정이 최소 3달 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총장 공석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총장 선출제 개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은 지난 여름 방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5월 대학평의회(대평의)와 법인은 ‘차기 총장, 새 제도’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법인이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 투표 방식’ 도입을 반대하면서 실무회의가 결렬되자, 두 달 가량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지난 8월 29일 법인 이사회에서 예정됐던 총장 선출제 개정마저 무산됐다.

이후 조인원 총장이 4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9월 4일 총장 선출제 개정안 논의가 적극적으로 재개됐다. 하지만 일부 구성원 단체들이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배제됐

다고 지적함에 따라 지난 9월 13일 법인 공영일 이사장은 돌연 “앞으로 대학이 총장 선출제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는 29일간 결렬 상태에 머물러 있던 개정안 논의가 재개된 지 10일 만이었다.

법인의 일방과기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조인원 총장은 9월 17일 “구성원 의견 수렴에 대학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평의에 속하지 않는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학이 논의 테이블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소득 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18일 열린 구성원 대표자 간담회 당시 국제캠퍼스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은 “하나의 초점없이 진행되는 방식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수회의 또한 지난 2일 통신문을 통해 “조인원 총장은 구성원 의견 수렴을 하겠다면서 50일 동안이나 법인 소위원회와 대평의 대표단의 논의를 중단시켰다”며 “이는 총장 자신이 구상한 선출 안으로 선임 총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학생회·직

원노조·총동문회와 함께 ‘총장선출을 위한 범법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선출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진전이 없다면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운영 전반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논의’는 총장 선출제 이슈에 밀려 지난 6월부터 반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김영진 서울 사무국장은 “차기 총장이 빨리 선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SPACE21 2단계 사업 등 총장 없이는 결정되기 힘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더십 부재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총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잠시 정지될 것”이라며 “총장 대행이 책임지기 힘든 인사, 재정 등의 사안이 상당부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총장 임기 만료 이전에 새로운 제도를 확정하려면 구성원 의견 수렴과 개정안 단일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1일 조인원 총장이 대평의와 가진 간담회에서 “대학이 가진 개정안은 없다”는 데 이어 “대학은 더 이상 구성원의

견 수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인원 총장이 총장선출제 논의의 주체는 대학이 아닌 법인과 구성원이 돼야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대평의는 대평의에 포함되지 않은 학내 구성원 단체의 의견을 직접 수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김종현 위원장은 “총장실이 법인과 대평의의 총장 선출제 논의 재개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 대평의가 학내 구성원 단체 의견을 수렴해 단일화된 총장선출제 개정안을 도출해야하는 숙제가 주어졌다”고 밝혔다.

법인과 개정안 단일화도 대평의가 풀어야 할 주된 숙제다. 추후 단일화 없이 대평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법인소위원회 개정안까지 법인에 제시될 경우, 법인 측 안이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잔존하기 때문이다.

대평의 이성근 의장은 “개정안 단일화를 위해 이번주 법인 공영일 이사장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며 “지난 여름방학 결렬된 실무회의를 다시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복기숙사 부정’ 주장

〈경실련-학내 학생단체〉

## 대부분 근거 약한 것으로 판명

김수혁 sherk@khu.ac.kr

【서울】학교가 행복기숙사 사용승인 지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대자보가 두 차례에 붙어 논란이 일었으나 취재 결과 ‘밀실회의’의 존재를 비롯한 대자보의 주장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1일 학내 게시판에 〈그것이 알고 싶다-‘밀실회의’편〉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경희학원 현 책임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취재하는 학생 연대(경실련)’라는 단체 명의의 이 대자보는 학교가 행복기숙사 사용승인 지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자보는 내부 고발자에게서 입수했다는 ‘비공개 밀실회의 문건’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대자보에 따르면 경실련 측은 학교를 상대로 행복기숙사 사용승인 지연에 따른 대책회의의 내역과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 측은 2017년 7월 24일 한 건의 회의가 있었다는 답변과 회의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자신들이 가진 ‘비공개 밀실회의 문건’이 학교가 공개한 7월 24일 회의와는 별개의 대책회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주장하며 학교가 이른바 ‘밀실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대자보에서 ‘비공개 밀실회의 문건’을 바탕으로 주장한 학교의 부정행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밀실회의’의 존재를 은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둘째, 행복기숙사 입주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을 입주시켰으며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학생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셋째, 구청과 법인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로 사용승인이 지연되자 총학생회(총학)에게 구청을 압박하는 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청탁했다. 넷째, 건축 과정에서 학생 안전문제를 경시했다.

학생지원센터 이진섭 과장은 대자보가 ‘밀실회의’의 증거라고 든 문건에 대해 “그 문건은 2017년 7월 24일 회의의 참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 건설사업단이 제작한 자료다”라며 별개의 대책회의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그 자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대자보가 문제 삼은 문건 내용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예측, 대책 제안 같은 유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밀실회의’의 근거로 든 ‘비공개 밀실회의 문건’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된 회의를 위한 참고자료라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회의에 직접 참석한 전 간호대 학생회 홍보국장 이재영(간호학 2015)씨는 “해당 자료를 제공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은 대자보의 다른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은 “구청이 행복기숙사 사용승인에 공공도로 확보를 문제 삼은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라며 “애초 건축 인허가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사회학과에는 여성  
여성학 교수가 필요

【서울】노천극장 옆 중앙대자보판에 사회학과 여성학을 전공한 여성교수의 임용을 요구한 대자보가 게재됐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여성학 교수 임용을 위한 연대서명을 읽고 있다.

강래만 기자 krw97@khu.ac.kr

## 51대 총학선거 일정 확정 … 서울캠 26일, 국제캠 27일

박재령 기자 kparr@khu.ac.kr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2019학년도 양 캠퍼스 제 51대 총학생회(총학)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국제캠퍼스(국제캠)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캠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 예비등록 및 추천기간을 거쳐,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을 가진다. 국제캠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가지고 17일부터 26

일까지 7일간은 선거운동기간이다.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선거는 국제캠이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동시에 진행되는 반면, 서울캠은 선거단위마다 상이하다. 서울캠 각 단과대학과 무용학부, 자율전공학과는 자체적으로 선거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국제캠 중앙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단과대학 선거와 같은 기간인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고, 서울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제36대 총동아리연합회 구성을 위한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해 회장단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재보궐 선거가 두 차례 무산됨에 따라 올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던 서울캠 총여학생회의 선거 또한 오는 11월 말 이뤄진다. 서울캠 제 31대 총여학생회 선거 투표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국제캠은 올해 총학 선거에서 전자투표 시행이 확정됐다. 서울캠은 오는 5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투표방식이 포함된 세부시행세칙을 의결할 예정이다. 단과대학 선거의 경우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 문과대학, 호텔관광대학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캠 총학 송태현(경영학 2014) 회장은 “중앙선거에서

### 11월 선거 일정

서울캠 총학 : 26~28일  
국제캠 총학 : 27~29일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 27~28일  
국제 중동연 : 27~28일  
서울 총동연 : 19일(예정)  
서울캠 총여 : 26~28일

전자투표가 이뤄진다면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단위는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캠 총학 송태현(경영학 2014) 회장과 국제캠 총학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이 호선됐다.

### 알림

#### 사령

〈명 정기자〉

강석현(철학 2015)	박혜림(원예생명공학 2017)
김수혁(철학 2016)	안수민(식물환경신소재공학 2018)
김지원(국어국문학 2018)	이서림(한국어학 2017)
박소영(체육학 2017)	

### 교수 칼럼

강사법, 오해와 진실  
채효정 전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 7면

